

왕과 국가의 회화



왕실회화
01

왕실회화
01

조선시대 궁중회화 1

왕과 국가의 회화

박정혜
윤진영
황정연
강민기
지음

돌베개

한국학중앙연구원 | 박정혜 · 윤진영 · 황정연 · 강민기 지음

왕조국가이며 전제군주국가였던 조선시대에 궁궐은 왕과 왕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처임과 동시에 왕이 통치권자로서 신료들과 국정을 논하는 공간이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폐쇄적이면서도 최고의 권위와 공적인 개방성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렇게 편차가 큰 기능과 다층적인 성격을 지닌 궁궐에서 왕과 왕 가족들이 필요로 했던 그림들은 실로 다양하였다. 일회성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그림이 있었는가 하면, 영구한 보존을 염두에 두고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였다. 왕실의 안위와 국정의 운영을 위해 창출되었던 공리적인 효용성이 큰 그림이 있었는가 하면, 왕과 왕 가족 개인의 예술적 욕구와 심미적 충족을 위해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왕과 왕 가족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제외하면, 그림 대부분은 궁중화가 즉 국가 회화기관인 도화서 소속의 화원들에 의해 그려졌다.

궁중회화는 제작 목적과 용도, 제작자와 향유층을 고려할 때 대략 다음의 일곱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궁중의 회화 관련 업무 중 가장 중대사로 여겨졌던 어진, 행정에 필요한 각종의 실용화, 예치의 실천과 국가 예전의 시각적 보전을 위해 제작된 의례도, 국가행사의 제현과 기념을 위해 제작된 궁중행사도, 왕의 덕치와 왕실의 교육을 위한 감계화, 왕과 왕족이 감상과 취미를 위해 그린 그림, 궁궐건축을 장식했던 궁중장식화가 그것이다.

—본문 중에서



값 28,000원



9 788971 994221 04900

ISBN 978-89-7199-422-1
ISBN 978-89-7199-421-4 (세트)

돌베개



01

조선시대 궁중회화 1

왕과 국가의 회화

2011년 5월 9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박정혜·윤진영·황정연·강민기

펴낸이 한철희

펴낸곳 돌베개

등록 1979년 8월 25일 제406-2003-018호

주소 (413-75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도시 532-4

전화 (031) 955-5020

팩스 (031) 955-5050

홈페이지 www.dolbegae.com

전자우편 book@dolbegae.co.kr

책임편집 윤미향·좌세훈

편집 이현화·김진구·이경아·소은주·권영민·조성용·김태권·김혜영·최해리

디자인 이은정·박정영

제작·관리 윤국중·이수민

마케팅 심찬식·고운성·조원형

인쇄·제본 상지사 P&B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이 도서는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AKS-2007-BC-2001).

ISBN 978-89-7199-422-1 04900

978-89-7199-421-4 (세트)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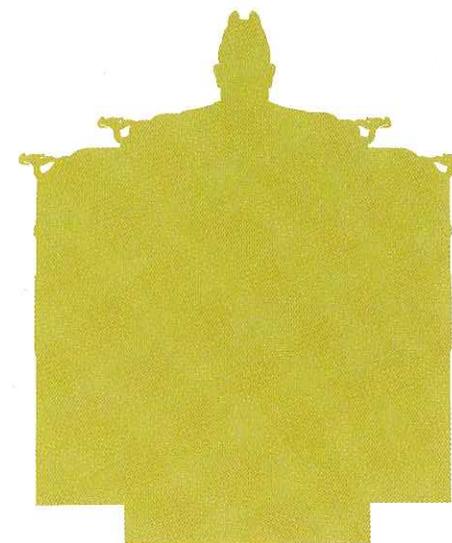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홈페이지(<http://www.nl.go.kr/ecip>)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1000608)



01

조선시대 궁중회화 1

왕과 국가의 회화



한국학중앙연구원 | 박정혜 · 윤진영 · 황정연 · 강민기 지음

돌베개

차례

책머리에 | 5

제1부 궁중회화의 세계 | 박정혜

- 1 궁중회화를 이해하는 첫걸음 | 14
- 2 왕실의 안위와 계승 어진, 공신상 | 19
어진 제작과 봉안 · 19 공신상의 제작과 봉안 · 25
- 3 국정의 운영과 실용 각종 시각적 문서와 실용화 | 29
국토의 시각화 지도, 산릉도, 산천형세도, 지형도, 건물도 · 29
국가 행정과 시각매체 응도, 고신도, 재미도 · 36 국가 외교와 중국 사신의 수응 · 40
- 4 기록과 보존 도감의궤와 의궤도 | 45
글과 그림의 조화 도식, 도설, 반차도 · 45 의물의 건양도 및 건물도 · 47 반차도 · 53
활자인쇄 의궤와 목판화 도설 · 65 일제강점기 이왕직과 주감의궤 · 73
- 5 재현과 기념 궁중행사도 | 77
관청 계합의 유행과 기념화 제작의 관행 · 77 영조 연간의 궁중행사도 · 80
영조 연간의 궁중연향도 · 87 왕세자를 위한 궁중행사도 · 93
대한제국기 궁중행사도의 변모 · 102 궁중행사도의 재생산과 가전 · 113
- 6 감계와 교육 감계화 | 119
무일도와 빈풍도류 · 119 성군현비 고사도 · 121 효행도와 세자 교육 · 123
- 7 취미와 감상 왕과 왕족의 그림 | 127
화기로서의 왕과 왕족 · 127 현상과 감상 신자관 회화 · 132 왕실 여성과 자수 그림 · 134

- 8 의례와 장식 궁중장식화, 벽화 | 136
외전과 장식화 · 137 내전과 장식화 · 141 동궁전과 장식화 · 147
- 9 궁중회화의 특징 | 155

제2부 조선시대 왕의 그림취미 | 윤진영

- 1 그림과 왕의 취미 | 162
- 2 왕의 그림취미와 감계화 | 167
말예와 감계 · 167 감계화의 주제와 내용 · 172
- 3 역대 국왕의 그림취미 | 176
세종 · 성종 · 연산군 · 중종의 그림취향 · 176 선조 · 인조 · 숙종의 그림취향 · 184
영조 · 정조 · 헌종의 그림취향 · 194
- 4 왕이 그린 그림 | 206
인종의 묵죽도 · 207 선조의 난죽도와 묵죽도 · 209 정조의 수목화조화 · 210
헌종의 산수도, 영왕의 소묘 화첩 · 215
- 5 글을 맺으며 | 219

제3부

조선왕실의 회화 컬렉션과 궁중미술관 | 황정연

- 1 궁중회화 컬렉션 둘러보기 | 226
- 2 조선왕실 회화 컬렉션의 전통 | 228
 - 고려시대 궁중 서화수장 제도의 계승 · 228
 - 국가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회화 컬렉션 · 231
 - 왕족들의 그림 수집과 궁중회화 컬렉션 · 234
- 3 궁중 미술관 그림을 보관했던 전각 | 240
 - 국왕의 초상을 보관했던 진전眞殿 · 240 국왕의 글씨와 그림을 보관했던 존각尊閣 · 244
 - 18세기 봉모당의 건립 · 246 그 외 그림을 보관했던 전각 · 248
- 4 궁중에 보관했던 그림들 | 255
 - 역대 화가들의 그림 · 255 중국 및 일본 그림 · 259
- 5 일제강점기 궁중 컬렉션 | 263
- 6 조선 궁중회화 컬렉션의 의미를 되새기며 |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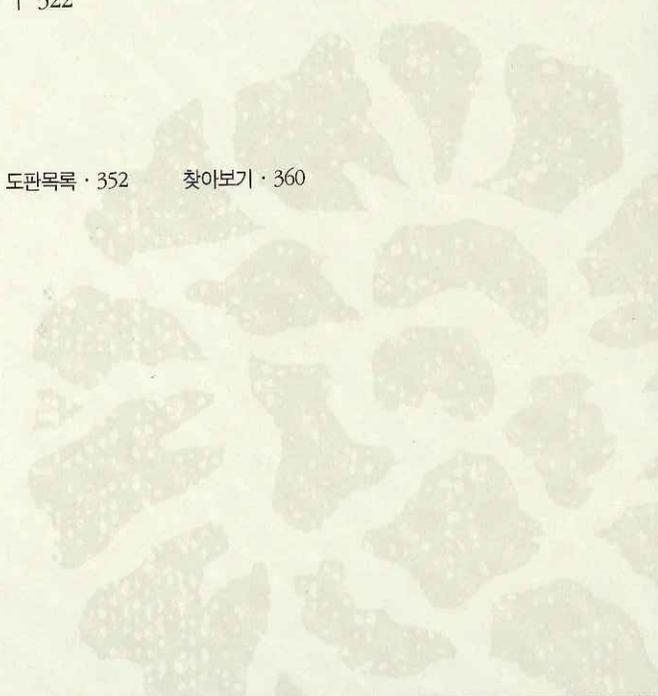
제4부

제국을 꿈꾸었던 전환기의 한국화단 | 장민기

- 1 전환기의 국가와 미술 | 270
- 2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 272
 - 외국과 주고받은 회화 · 272 기술직 전문인이 된 화가 · 274
 - 꾸며진 황궁, 그 속의 회화 · 279 제국의 상징, 어진 · 288
- 3 영원한 제국을 꿈꾸며 | 294
 - 어전 휘호회 · 294 국왕에게 헌상된 회화 “공경히 그려 바칩니다” · 298
 - 재건된 궁궐의 장식용 그림 · 299 국가와 국왕의 안녕을 기원 드리며 · 313
 - 헌납된 일본화 · 315 국왕이 하사한 그림 · 319
- 4 대한제국의 미술정책 | 322

부록

- 주 · 330
- 참고문헌 · 346
- 도판목록 · 352
- 찾아보기 · 360



도30 백응도 전 건릉제, 동아대학 교박물관.

중국 황제의 그림으로는 송 휘종이 그렸다는 〈백응도〉白鷹圖와 정 건릉제가 그렸다는 〈백응도〉 등이 전한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김장업이 연행했을 때 화원에게 모사케 하여 가져온 휘종의 〈백응도〉에 속종이 어제를 지었고 현종 연간 창덕궁의 승화루承華樓에는 휘종의 〈백응도〉 두 축이 수장되어 있었다. 낙엽이 진 가을나무를 사이에 두고 까치를 겨냥하는 매의 취세에 자못 긴장감이 넘친다.



연성 있게 적용되었다.

국가 외교와 중국 사신의 수용

중국과의 외교 문화적 교류에서 필요했던 그림들은 대부분 화원에 의해 국가적인 차원으로 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궁중회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의 중국 사신에 대한 대응과 회화 교류의 양상은 명나라와 청나라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명나라 사신의 접대를 위한 회화활동이 훨씬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다.²⁶ 이는 조선 조정이 명과 청에 대한 입장과 명분에서 차이를 두었음의 의미이며 시대에 따른 회화적 욕구 또한 달라졌음을 반영한다.

북경에 사행하는 조선의 사절단과 조선에 온 중국 사신들을 통해 오고 간 서화의 내용은 일일이 국왕에게 보고되었으며, 중국 측으로부터 선사받은 그림은 대부분 왕에게 진헌되어 궁중 수장으로 들어갔다. 명 영락제가 하사한 기린·사자·복록 등을 그린 서상도瑞祥圖, 성인도聖人圖, 선덕제의 용기도龍騎圖, 성화제의 패하노안도敗荷蘆雁圖 등이 내탕고에 수장되었다.²⁷ 도30 참고 또한 연행사절단을 수행한 화원들은 관방의 형세를 그려 오거나 지도를 모사해 오기도 하였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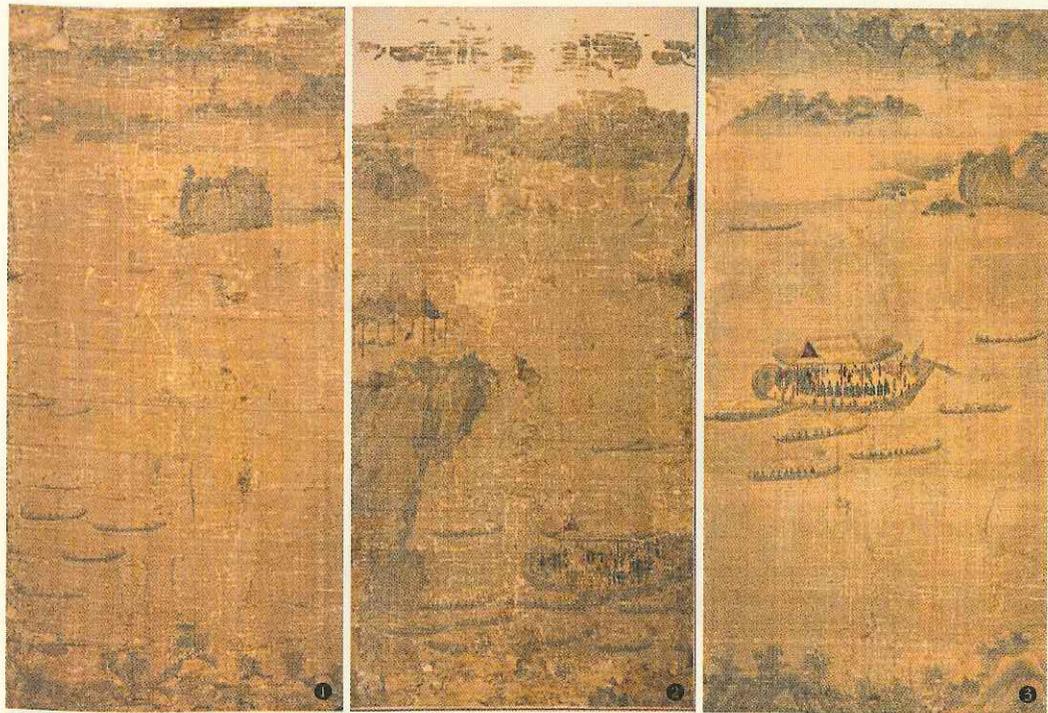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에게 선사하는 예물 중에는 언제나 그림이 포함되었다. 매화梅花·충효忠孝·산수·화초 등을 주제로 한 족자 그림, 또는 부채 그림 등이 선호되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공족자空簇子 10축이 선사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불교 성지로 유명해진 금강산을 그린 그림이나 조선의 풍속화첩처럼 관례적으로 요구하는 종류도 있었지



만, 개인 취향에 따라 명나라 사신들의 요구는 상당히 다양했다. 때로는 사신이 떠나기 전까지 그들이 요구했던 그림을 기일을 맞추어 완성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중국 사신들은 사시경도四時景圖 같은 정형산수화는 물론 평양 지역의 명승도, 양화도楊花渡의 사계절 그림, 한강도漢江圖 같은 조선의 실경산수화를 원했으며, 영조도迎詔圖, 한강유람도漢江遊覽圖, 근정전청연도勤政殿請宴圖, 반류송행도攀留送行圖와 같이 자신이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고 들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록화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개인 취향에 따라 즉흥적으로 '영조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1537년(중종 32)과 1539년에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들의 경우이다. 이 그림들이 어떤 형식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군사의 위용'과 '백관의 반열'을 묘사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서를 실은 가마, 말을 탄 수행원, 도로변의 구경꾼들이 포함된 기록화적이면서 조선의 의장풍속을 알 수 있는 성격의 그림

도31 의순관영조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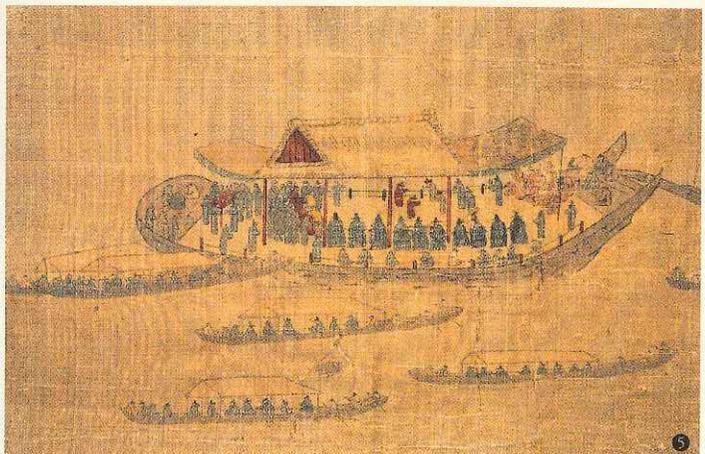
1572년 명나라 신종의 중국 조서를 가지고 온 사신들을 압록강에서 맞이한 원접사 정유일鄭惟一(1533~1576) 이하 65명의 개첨이다. 압록강, 의순관, 의주성義州城, 조서를 담은 용정龍亭과 향정齋亭을 앞세운 사신 일행, 이들을 맞이하는 원접사 일행 등이 묘사되어 있다.



532 행海道병행圖屏 국립중앙박물관(1~3).

532-1 제3첩의 선유 부분(4).

이 그림은 현재 4첩의 병풍으로 장황되어 있으나 원래는 이보다 많은 폭으로 이루어진 병풍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제작 목적과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지붕이 있는 배, 오사모烏紗帽에 공복公服을 입은 관리, 무동의 공연과 악공의 연주, 제천정濟川亭으로 생각되는 정자, 음식을 준비하는 막차幕次 주변의 정경 등의 내용은 한강에서의 사신 접대를 연상케 한다.



이었다고 생각된다. 중국 사신들은 사행의 기념화로서 영조도를 원했던 반면에 명사明使를 접대한 조선의 관반館伴들은 임무를 완료한 후 계획도로서 '영조도'를 제작하였다.⁵³¹

중국 사신, 특히 명나라의 사신들은 도성에 체류하는 동안 배를 타고 한강을 유람하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선유船遊하는 동안 경관이 좋은 제천정에 올라 주변을 조망하고 대신 및 관반들과 술자리를 갖곤 하였다. <행海道병>은 그려진 내용이 당시 중국 사신들의 한강 유람 양상과 부합하여 중국 사신들의 요구에 의해 선사된 '한강유람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532, 32-1} 그 밖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왕

533 송조천객귀국시장도 宋朝天客歸國詩草圖 국립중앙박물관.

명나라에 갔던 조선 사신들이 뱃길로 귀국하는 것을 전송하는 광경을 그린 중국 그림이다. '조천 사신이 귀국하는 것을 전송하는 시장'이라는 뜻의 예시체 제목과 명의 감찰 어사 금유심금唯深의 전별시가 별도의 종이 바탕에 쓰여 있다. 북경 천도 이전 남경의 명나라 황성 모습이 립지막하게 배치된 점, 바닷길을 사용하여 명나라에 사행한 것이 1409년까지였던 점, 1392년에 바뀐 황성 밖의 광장 구도가 표현된 점 등은 이 그림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정은주, 박시학위논문, pp.24~28 참조).

의 어용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것만은 꼭진하게 거절되었다.

중국 사신들의 요구를 기분 좋게 다 들어주고 또 예법과 절차에 맞게 수용하는 일은 조정과 화원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긴장의 연속이었다. 조선 초 문물을 정비한 세종은 중국에 보내는 말 다래와 표통表筒, 보자기의 문양에 대해 몸소 정밀한 견양見樣을 제시할 정도였다. 용과 봉황의 발톱, 이빨, 눈, 날개 등 그림의 이주 작은 세부까지 한 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성과 완벽함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는 중국 조정에 조선의 문물이 흠 잡히지 않으려는 노력이기도 했지만, 조선 의례품의 적합한 도상과 수준 높은 공예 기술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고 연행사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그림이 내탕고에 들어왔고,⁵³³ 조선의 궁정에서 제작된 그림들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부경赴京 사행원과 수행 화원이 중국에서 경험한 서양문물과 구득한 서양화가 18세기 조선화단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외에 중국 궁정회화가 조선화단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보아야겠지만, 양국 간의 문화교류에 회화가 차지했던 비중은 적지 않았으며 양국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